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 학술포럼'

저출산·고령화 불교에서 해법 찾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던 구호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던 덕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돼 버렸다. 육아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사회 시스템은 출산율 1.08명이라는 최저 수치를 낳았고, 평균수명의 증가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9.1%에 달하는 고령사회가 됐다.(이상 통계청 2005년 발표자료) 하지만 '정책'과 '수치'만으로 사태가 개선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인식'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 불교사회복지연구소가 5차 학술포럼의 주제를 '저출산 • 고령 사회에 대비한 불교적 방안 모색'으로 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삶과 죽음, 가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자는 것이다. 주제 발표 요지를 정리해 싣는다.

▷불교적 출산관-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불교는 가정을 새로운 생명(불성)의 탄생처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생명체들이 이루어내는 생명공동체인 가정은 그 어떤 곳보다 귀중한 공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이를 낳는 것이 새로운 고통의 수레바퀴에 진입시키는 것이라는 관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지난 생(生) 이래의 윤회를 마감하고 금생에 새로운 깨달음을 이룰 불성을 지닌 존재를 키워낸다는 점에서 본다면 출산은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때문에 출산의 조절은 깨달음을 얻은 새로운 붓다의 탄생을 가로막는 것이 된다. 새로운 생명의 출산은 단지 내 아이를 낳는 소승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체의 거시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출산 장려와 입양 권장은 개인의 힘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정부의 출산과 입양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불교계에서도 임신중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세계 최고 임신 중절율과 세계 최저 출산율의 두 기둥을 소통시킬 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다.

출산 조절, 불성 존재 탄생 가로 막는 것

▷불교적 가족관-김일명 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불교에서는 부인과 남편의 관계를 같은 종교의 길을 가는 동반자, 즉 도반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부부의 도반관을 근간으로 평등과 화목을 가족의 중심 가치관으로 삼는다. 한 집에 산다는 것은 물리적 거주의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을 청정히 하고 보시를 베풀고 지혜를 닦아가는 이상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포한다. 돌봄과 베품의 의미체로서 가족의 위치를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혈연보다는 '인연'이라는 큰 틀을 제시하고 있는 불교의 가족패러다임은 저출산 고령화로 야기된 '돌봄'의 부재현상에 일침을 가한다. 부부간의 인격적 평등은 의무적 '돌봄'이 아니라 자발적 배려를 통한 관계맺기를 함으로써 상호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폭제가 된다.

불교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돌봄'의 사회화를 실천하는 작은 지역공동체가 생겨나고 공동육아 방식의 어린이집, 생태주의적 학교, 공동부양협동조합 방식의 데이케어센터 등이 생겨나기를 희망한다.

'돌봄'의 사회화 실천하는 공동체로

▷불교적 노년관-신성현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늙음의 괴로움은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다. 육체가 무상하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자는 육체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괴로움이 덜할 것이고, 내 몸이 영원하리라는 착각에 사는 사람은 늙음의 여러 형상들을 보고 자신을 혐오할 것이다.

부처님은 노인을 구호할 때 육체가 겪는 괴로움보다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 또한 부처님은 노년에는 지계와 믿음, 지혜와 공덕으로 평안함을 얻을 수 있으며 늙음의 모양에 구애받지 않고 늙음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늙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늙음이라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인간존재의 본연의 모습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정행을 완성시킴으로써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늙음의 괴로움도 무명(無明)과 갈애(渴愛)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인을 자각하고 청정행과 팔정도를 실천하여 소멸시킨다면 인간은 마침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늙음의 변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불교적 죽음관-오진탁 교수(한림대 철학과)

우리 사회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문화'가 없다. 죽어 가는 사람을 육체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 치료할 뿐, 영적으로 보살피는 의식이 결여되어 외로움에 지치고 압박감과 미몽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은 두려움 혹은 절망, 부정, 분노, 슬픔, 삶의 마무리, 순응, 희망, 마음의 여유, 밝은 죽음이라는 단계로 죽음을 받아들인다. 죽음을 수용해 순응하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하지만 임종을 앞둔 사람 중에는 마지막까지 죽음을 거부하거나 분노를 표하기도 한다.

불교는 생사불이(生死不二) 즉 삶과 죽음 사이에 조금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삶뿐만 아니라 죽음의 길마저도 어둠을 밝히는 광명으로 삼으라고 가르쳤다.

'어떻게 살 것인가'하는 질문은 세속적인 성공이나 출세 등을 모색하는 '삶의 양'과 관계되는 질문인 반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하는 질문은 삶과 죽음의 의미 · 보람 · 죽음방식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삶의 질'과 관계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다운 사람의 권리만 생각했을 뿐, 인간다운 존엄한 죽음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았다.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죽음을 실제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두려움 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40. 의례화 된 차

고려 초기는 신라의 전통 문화와 신앙을 이어 민족의 신앙으로 도가(道家)와 선종(禪宗) 중심의 불교가 공존하고 있었다. 당시 외국과의 문물교류가 활발해 외국 사절단과 무역업자들이 들어올 때 고려의 수도인 송도(松都, 개성의 옛 이름)에는 큰 시장이 형성되었다. 중국의 무역선은 고려의 연등회나 팔관회에 맞추어 배를 출항시키기도 했다. 고정적인 상점 외에도 노상(路商)이 형성되었으며, 귀족, 관리, 상인에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문물교류가 활발했다. 이러한 교역 물품 중에 차가 왕실과 귀족층의 하사품과 선물로 유통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찰과 민간에까지 널리 확대되었다.

고려 왕실 국가의례때 진차 의식 베풀어
사찰 주변 다촌 형성 품질 좋은 차 생산

고려 태조는 그의 자손들이 후대에 꼭 지켜야할 <훈요십조>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연등(燃燈)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고, 팔관(八關)은 천령(天靈) · 오악(五嶽) · 명산대천(名山大川) · 용신(龍神)을 섬기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촌(茶村)이 있었다는 통도사.

고려 왕실은 국가의례로 매년 11월 팔관회와 2월 연등회를 대대적으로 열었다. 이때 왕이 직접 진차(進茶) 의식을 베풀었는데, 이러한 의식은 임금이 신하에게 차를 올리라고 명하면 차를 올리게 된다. 태자와 신하들에게도 차가 주어진다. 이렇게 해 모두 차를 마시고 나면 술이나 다른 음식들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나오게 된다.

왕자의 책봉과 공주를 시집보낼 때도 진차 의식이 이었다. 이처럼 차 의식은 복잡한 형식이 있기보다는 술, 과일, 음식이 나오기 전에 차를 올리는 의식이었다. 조정에는 이러한 절차를 관장하기 위해 다방(茶房)이라는 관청을 두었다. 다방은 주로 종묘제사나 외국 사절단을 맞이하는 일, 각종 의례 및 연회 등을 관장했다. 행로(行爐), 다담(茶擔), 군사(軍士)등이 있어 행사를 주관했으며, 지다방사(知茶房事)라는 책임자를 두어 다방을 관리했다.

연등회나 팔관회 같은 국가의 큰 연중행사에는 외국사절단이 참석을 하기도 했다. 중국 사신 서긍(徐兢)은 팔관회에 직접 참석을 했다. 서긍은 "한국의 토산차는 그 맛이 쓰고 떫어서 입에 넣을 수 없으니 오직 중국의 뇌차와 용단차를 귀하게 여긴다"라 한 것으로 보아 중국차만이 아닌 우리의 토산차가 의식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차는 왕이 하사를 하거나 상인들을 통하여 판매가 된다"고 <고려도경>에서 밝히고 있다. 고려의 차는 왕실에서만이 아닌 민간에서도 널리 마신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유학승들이 중국에서 돌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차가 사찰에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고 사찰의 필수품이 된다. 산간의 작은 사찰은 직접 차를 재배하기도 했지만 큰 사찰들은 주변의 가까운 마을에서 차를 재배하도록 해 공급받았다. 사찰 주변에는 차를 재배하는 마을인 다촌(茶村)이 형성되었다. 품질이 좋은 차는 사찰과 왕실, 관리들에게 상납되었다. 특히 사찰에는 다각(茶角)이 있어 차와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하였다. 승각(僧角)또는 다동(茶童)이라고도 불렀다. 주로 승려가 되지 못한 어린이들이 사찰에서 기거를 하면서 차에 관련된 심부름을 했다. 고려 중기 이후에 관청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사노(寺奴)를 데려와 그들이 승각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고려시대 사찰의 차 문화는 한국 차 문화의 명맥을 이어오는 줄기가 된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일주일 철야 정진법회 안내

본 보림선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하계 철야정진 법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보림선원 일주일 철야정진 법회는 백봉선생님께서 확철대오 하신 후 본격적인 대중교화를 펴실 때 학인들을 개오(開悟)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여름과 겨울에 정기적으로 실시 하셨으며 입적 후에도 철야정진을 놓치지 말라는 유훈에 따라 제자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세속에서 맺어진 생업을 가지고 혈연을 돌보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학인들이 일주일 철야정진 기간동안 좌선과 설법을 통해 불교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어 많은 공부인을 양성하셨습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일주일 철야정진 기간동안은 백봉선생님의 육성법문과 불교공부의 바탕마련을 위한 교재로써 공부하며 선생님의 도반이시자 제자이신 보림사 회주 묵산스님께서 지도 해 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7년 7월 26일(목) 오후 8시부터
2007년 8월 1일(수) 오전 7시까지
■ 장 소 : 보림사 선방(서울 성북구 정릉4동 약수길 17-1호)
■ 회 비 : 일반 9만원
■ 연락처 및 문의처 : 017-332-4096 / 02)914-6187
■ 준비물 : 간편한 참선복, 세면도구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돈암역 하차 정릉 청수장행
버스(143, 162, 1012, 1013)
대우아파트 하차(돈암역 25분 소요)

조계종 보림사 회주 묵 산 합장
보 림 회 회장 장철순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북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북이틀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